

세계인구총회 유치배경 및 개요

*XXVII IUSSP Conference 2013 and
Its Background*



김태현 한국교원대학교 명예교수
IUSSP 부산총회 국가조직위원회 국내협력분과 위원장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동안 개발도상국의 인구특성에서 선진국의 인구특성을 모두 경험하여 많은 국가의 관심을 모으면서 세계 인구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는 세계인구총회를 개최할 최적지라고 판단하고 유치하게 되었다. 세계인구총회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하여 세계인구과학연맹(IUSSP)을 소개하고, 우리나라가 세계인구총회를 개최하게 된 필요성과 개최의 예상효과를 정리하였다. 끝으로 2013년 8월 26일부터 6일간 우리나라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27차 세계인구총회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1. 들어가며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의 인구는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대표적인 국가이다. 합계출산율이 1960년에 6.0명에서 1983년 대체수준에 도달하여 출산억제에 성공하였으나 문화와 가치의 빠른 변화로 2005년에는 1.08명으로 초(超) 저출산 국가로 변모하였다. 출산율 감소와 함께 인구 고령화는 새로운 전환점에 와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2010년 11.0%에서 2060년에는 40.1%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¹⁾. 이 때면 현재 최고령 국가인 일본을 추월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까지

해외로 이민을 보내는 나라였으나, 1990년대부터 저임금 노동력과 혼인이주여성들을 받아들이는 나라로 변모하면서 단일민족국가에서 다문화국가로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도시화는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1970년대 중반 도시인구는 총인구의 절반 수준을 넘었고, 2000년대에는 80%를 상회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동안 개발도상국의 인구특성에서 선진국의 인구특성을 모두 경험하여 많은 국가의 관심을 모으면서 세계 인구관련 전문가가 참석하는 세계인구총회를 개최할 최적지라고 판단하고 유치하게 되었다. 세계인구총회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하여 세계인구과학연맹(IUSSP)을 소개하고, 우리나라가 세계인

1)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2010~2060.

구총회를 개최하게 된 필요성과 개최의 예상효과를 정리하였다. 끝으로 오는 8월 26일부터 6일간 우리나라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27차 세계인구총회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2. IUSSP의 성격

세계인구과학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the Scientific Study of Population, IUSSP)은 1928년에 설립되었으며, 세계대전 직후인 1947년에 재결성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일반인, 정부, NGO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전 지구적인 인구관련 문제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이들을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 접근을 시도하고, 그 결과가 실제 인구정책으로 입안될 수 있는 국제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정규 등록회원 수는 세계 150여개 국가와 국제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국제기구(UN Population Division, UNFPA, PAA, APA, WHO, World Bank, The Wellcome Trust 등)의 인구관련 학자, 정치가, 관료, 사회운동가 등 2,00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사무국은 프랑스 파리에 위치하고 있다²⁾.

세계인구과학연맹의 중점추진사업으로는 UNDP와 연계하여 전 지구 차원의 인구정책을 개발하고, 'Panel on Population and Poverty'와 같은 인구문제에 관련된 20여개의 각종 국제위원회 조직이 활동하고 있다. 수시로 지역

혹은 국가의 인구현안에 대한 학문/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국제적 인구현안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연맹이 주관하는 가장 큰 행사는 4년마다 개최하는 세계인구총회(International Population Conference)이며, 제27차 인구총회를 부산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세계인구과학연맹이 발족한 초기에 보통 2~3년 마다 개최되던 세계인구총회는 1965년 이후 4년에 한 번씩 개최되며, 학계는 물론 정관계와 재계의 주목을 끌며, 전 지구적 인구문제를 발굴하여 이에 대한 학문적 접근을 시도한다. 개최국의 현안 인구문제를 국제적인 인구전문가들이 학문적 접근을 통해 분석하고 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의사항을 마련하여 제시한다. 향후 전 지구적 인구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국제사회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선언문을 채택하기도 한다.

최근에 개최된 제26차 세계인구총회는 모로코의 마라케쉬에서 2009년 9월 27일부터 10월 2일까지 열렸으며 1,430편의 논문이 219개 구두 발표 세션과 5개의 포스터 발표 세션에서 발표되었다. 세계 150개 국가에서 2,300여 명이 참가하였다. 제25차 세계인구총회는 2005년 7월 18~23일에 프랑스 투르에서 개최되었고, 745편의 논문이 162개의 구두 발표 세션과 5개의 포스터 발표 세션에서 발표되었다. 25차 대회에는 108개국에서 2,000여명이 참석하였다.

2) 세계인구과학연맹(IUSSP) 홈페이지: www.iussp.org
세계인구총회 조직위원회 홈페이지: www.iussp2013busan.org

3. IUSSP 세계인구총회의 필요성과 효과

1) 세계인구총회의 국내 개최 필요성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빠른 인구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최근 출산력이 증가하는 경향³⁾이 있지만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고령화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정부가 저출산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지만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 해외로부터 급속한 인구유입, 젊고 고급 인력들의 해외로 이민, 통일시대 남북한의 인구교류 등 우리나라의 인구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다양한 변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정책적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문이다.

국제인구과학연맹(IUSSP)은 현재 약 2,000여 명의 세계적인 인구 관련 학자들과 정책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가장 큰 인구학 관련 단체이다. 이들은 출산력을 포함하여 인구이동, 건강·사망 등 인구의 구성과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제반 사회문제를 연구하고 있으며 그 학문적 배경도 매우 다양하다. 국제인구과학연맹이 주최하는 세계인구총회를 국내에서 개최함으로써 국내의 관련학계 전문가, 정치인, 시

민사회단체, 행정관료 등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어 우리의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통합적 접근을 모색하는데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중장기 성장동력을 이끌어 갈 기본 자원인 인구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 이것을 기반으로 한 인구정책의 마련은 우리나라 사회경제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IUSSP 세계인구총회의 한국개최는 이를 실현케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2) 총회유치의 효과

제27차 IUSSP 세계인구총회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다섯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⁴⁾. 첫째, 인구학과 관련 학문의 연구와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유례없이 짧은 기간에 제1 및 제2 인구변천을 경험하면서 당면하고 있는 저출산과 빠른 고령화에 대한 대책을 동양과 서양의 경험과 지식으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 국제이민에서 이출이 많았으나 최근 결혼 이민과 취업이민이 증가하면서 늘어나는 이민자의 정착과 관련된 정책을 서구의 경험으로부터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통계청이 추진하고 있는 2015년 등록센서스의 방법과 인구의 간접추계방법의 개발과 적용의 실재를 북유럽 국가들의 경험으로부터 익히고, 정립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인구학적 지식이 불모상태인 북한의 인구학자를 세계인구총회에 초청하여 남북한의

3) 합계출산율이 2005년에 1.08명까지 떨어졌으나 그 후 제도개선, 재정지원 등의 노력으로 2012년에 1.30명으로 회복하였음. 그러나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2013년에 다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통계청(2013). '2012년 출생통계(잠정결과)' 및 '월별 출생·사망동향 속보' 보도자료).

4) 세계인구총회 조직위원회(2012). 제27차 국제인구과학연맹(IUSSP) 세계인구총회 기본계획.

인구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무드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 저출산 대책에 대한 국민·언론·전문가 등의 관심을 높일 수 있다. 세계 각국 전문가들의 인구문제와 인구정책에 대한 연구결과의 발표와 토론내용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우리 국민이 인구변동과 사회적 영향을 이해하고, 인구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을 기대할 수 있다. 저출산이 정치·사회·경제·보건·환경·도시 등 국정 전반에 관련된 사안으로서, 범국가적 대응이 필요함을 홍보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사회의 모든 분야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의 심각성을 재인식 하게 된다. 2013년 총회 개최 후 3년 후인 2016년에 생산가능연령(15~64세)인구가 정점을, 저출산·고령화로 2030년엔 총인구가 정점을 이루고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변화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기자신의 문제라는 점과, 사안의 시급성에 대한 홍보에 도움이 된다.

셋째, 관련 연구 활성화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세계 석학들의 연구결과들은 우리나라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을 위한 이론적 근거가 되며, 선진사회의 인구관련연구와 인구정책의 교류로 우리에게 적합한 정책개발과 적용을 기대한다. 제1~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5) 추진성과에 대한 합리적 평가와, 이를 토대로 한 보완방향 및 추가 과제발굴이 가능하고, 관련분야의 연구 활성화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세계 각국의 인구정책에 대한 경험 및 정보 수집이 용이하고, 국가 간 협력·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넷째,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 홍보 및 관광 수입을 높일 수 있다. 한국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IT를 비롯한 첨단기술산업을 중심으로 압축성장한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 홍보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다. 부산광역시를 국제적으로 홍보하는 동시에 긍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를 포함한 우리나라 동남권 지역의 경제발전 및 고용창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다. 세계 150여 개국의 전문가들에게 우리나라의 역사·문화·자연·경제 등을 홍보할 수 있고, 대규모 전문가(2,000여명)의 방문으로 약 100억원의 관광관련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

다섯째, 개최지인 부산광역시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킨다. 이번 총회는 부산광역시가 21세기에 부합하는 새로운 성장전략을 구축하기 위한 시사점을 얻는 기회로 활용할 방침이다. 부산광역시는 동북아의 새로운 중심교역지로서 발돋움 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2020년 하계 올림픽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총회 개최는 부산의 국제적 인지도를 제고함으로써 향후 국제 컨벤션의 중심지로서 부산시의 브랜드 가치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4. 제27차 IUSSP 세계인구총회 유치와 총회 프로그램^{5) 6)}

세계인구총회를 유치함으로써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인구문제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유치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 2007년 10월에 인구문제연구소(소장: 박은

태)의 이사회에서 제27차 세계인구총회의 유치에 대한 논의를 하고 총회의 개최가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후 관계기관(보건복지가족부, 인구문제연구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인구학회 및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전문가회의를 수차례 개최(2008년 5~6월)하여 유치활동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유치활동을 위해 개최지가 있어야 하므로 2008년 8월에 인구문제연구소 이사회에서 개최후보지로 부산광역시 컨벤션센터(BEXCO)로 잠정결정하였으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국제행사심의위원회에 기본계획을 제출하여 정부가 세계인구총회에 재정지원하기로 결정(2008년 12월 12일)함으로써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학술대회로 격을 높였다. 본격적인 유치활동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 부산광역시, 인구문제연구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한국인구학회가 중심이 되어 학계와 정, 관, 언론계를 망라한 인사들로 제27차 세계인구총회 유치위원회(공동위원장: 박은태 인구문제연구소장, 유영학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권태환 서울대 명예교수)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2009년 5월 13일에 개최한 후 본격적인 유치활동을 시작하였다.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제26차 세계인구총회(2009년)에 우리나라 유치단이 참석하여 차기대회를 우리나라 부산에서 개최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당위성을 홍보함으로써 총회 참석자들과 연맹 이사들의 관심을 모았다. 총회의 폐회식에서 유치위원회 박은태 공동위원장(인구문제연구소장)이 「2013년 제27차 세계인구총회」 한국(부산)유치를 위하여 한국유치의 목적과 타당성 및 개최여건을 발표하여 가장 강력한 차기 총회개최 후보지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 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 부산광역시장이 총회의 성공을 위하여 행·재정 지원을 약속하는 서한을 첨부한 최종 제안서를 2009년 12월 15일에 제출하였다. 정부의 재정지원 약속과 한국 인구변동에 대한 국제적인 큰 관심으로 2010년 1월에 개최된 IUSSP 이사회에서 차기 세계인구총회를 부산 BEXCO에서 개최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부산 BEXCO에서 개최되는 제27차 세계인구총회⁷⁾는 2013년 8월 26일 개최식을 시작으로 8월 27일부터 본격적인 일반세션, 포스터 세션, 플레너리 세션, Side Meeting을 개최하고 8월 31일 폐막한다⁸⁾. 이번 총회의 특징은 일반 학술프

5) 세계인구총회 유치위원회(2009). 제1차 및 제2차 유치위원회 회의자료.

6) 세계인구총회 조직위원회(2012). 제27차 국제인구과학연맹(IUSSP) 세계인구총회 기본계획.

7) 세계인구총회를 주관하는 조직으로 국제조직위원회(IOC)와 국가조직위원회(NOC)가 있음. 국제조직위원회는 논문발표 세션 구성, Theme Convener와 Session Organizer 선정, 홈페이지 구축, 사전등록 및 등록비 수납 등을 담당하고, 국가조직위원회는 스페셜 세션 조직, 총회 회의장 확보, 참가자 숙박 시설, 현지 관광과 교통정보 및 주변 시설 정보제공, Cyber Cafe설치, 국내참가자 확보 및 국내홍보 등과 같이 실제 총회의 운영을 담당함. 국제조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국가조직위원회 위원장(박은태 인구문제연구소장)과 국제인구과학연맹 회장(Peter McDonald)이 당연직으로 맡고, 위원은 IUSSP 이사와 국가조직위원회 집행위원 3명이 참여하고 있음. 국가조직위원회는 위원장(박은태 인구문제연구소장)과 당연직 부위원장 3명(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한국인구학회 회장)과 학계, 정관계, 재계 및 언론계를 망라한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위원장의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자문위원회를 두었으며, 총회의 준비와 운영을 담당할 집행위원회와 6개의 분과위원회를 두어 인구총회의 성공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로그그램 외에도 아시아-태평양지역 특별세션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학술프로그램은 구두발표 세션과 포스터발표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두발표 세션은 아래의 21개 일반세션 주제(Theme)와 1개 아시아·태평양지역 특별세션의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포스터발표는 5개 세션으로 편성하고 있다. 총 270개 세션에서 1,080편, 5개의 포스터 세션에서 800편, 합계 1,880편의 논문발표를 예정하고 있다.

- 1) 성성과 생식보건
(Sexuality and Reproductive Health)
- 2) 에이즈 및 성적 접촉에 의한 질병
(HIV/AIDS and STDs)
- 3) 건강, 사망, 수명
(Health, Mortality and Longevity)
- 4) 출산력(Fertility)
- 5) 혼인, 동거, 가족, 가구(Marriage and Union formation, Families, and Households)
- 6) 국제인구이동(International Migration)
- 7) 국내인구이동 및 도시화
(Internal Migration and Urbanization)

- 8) 인구고령화 및 세대간 관계(Population Ageing and Inter-generational relations)
- 9) 어린이와 청소년(Children and Youth)
- 10) 젠더와 인구(Gender and Population)
- 11) 사회와 문화(Society and Culture)
- 12) 인구와 환경
(Population and the Environment)
- 13) 생물학적 인구학(Biodemography)
- 14) 인구와 인권(Population and Human Rights)
- 15) 인구와 개발(Population and Development)
- 16) 교육과 노동력
(Education and Labour Force)
- 17) 인구학 방법론 및 자료
(Demographic Methods and Data)
- 18) 역사인구학(Historical Demography)
- 19) 공간인구학(Spatial Demography)
- 20) 동아시아의 인구와 정책적 도전
(Population and Policy Challenges in East Asia)
- 21) 교육훈련(Training)

아시아 지역 인구는 전 세계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2010년 아시아 지역의 국내총

8)

제27차 세계인구총회 일정표

일시	8월 25일	8월 26일	8월 27일	8월 28일	8월 29일	8월 30일	8월 31일
8:30~10:00	Pre-Conference day: Side Meetings all day	Side Meetings	일반세션	일반세션	일반세션	일반세션	일반세션
10:30~12:00			일반세션	일반세션	일반세션	일반세션	일반세션
12:00~13:30			포스터	포스터	포스터	포스터	
13:30~15:00			일반세션	일반세션	일반세션	일반세션	폐회식
15:30~17:00			일반세션	일반세션	일반세션	일반세션	일반세션
17:30~19:00		개회식	UNFPA or IUSSP plenary	조직위원회 아-태 특별 plenary	UNFPA or IUSSP plenary	IUSSP plenary	Side Meetings
19:00~21:00		리셉션	Side Meetings	조직위원회 만찬	IUSSP 회원 총회와 Side meetings	IUSSP 회원 총회와 Side meetings	

생산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였으나, 2050년에는 51%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시에 아시아 지역은 빈부격차, 높은 영아사망률, 극심한 빈곤문제 등 다양한 인구문제가 현존해 있다. 따라서 아태지역의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중요한 과제이다.

제27차 IUSSP 세계인구총회에서는 21세기 새롭게 부상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인구학적 특성과 발전추이를 8개 세션에서 발표하고, 그 결과물을 활용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자국의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나아가 첨단 신기술이 인구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총회 참여국들이 함께 공유하는 노력을 확산한다.

아시아·태평양지역 특별세션은 기조세션(Plenary Session) 1개와 구두발표 8개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조세션은 ‘IT 기술이 인구 과정에 미치는 영향(The Impact of Information Technology on Demographic Processes)’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특별 세션에는 다음과 같은 8개의 일반세션이 있다⁹⁾.

- 1) 한국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인구변동
(Socioeconomic Development and Demographic Change in the Republic of Korea)
- 2) 북한의 인구변동 추세와 장래 전망
(Trends of Demographic Changes and their

- Prospects in North Korea)
- 3) 아태 지역의 정치인구학(Political Demography of Asia-Pacific Region)
- 4) 아태 지역의 국가간 학생이동과 고등교육 기관(International Migration of Students and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in Asia-Pacific Region)
- 5) 아태 지역의 수명, 가족생활 그리고 사회 계층(Longevity, Family Life, and Social Class in Asia-Pacific Region)
- 6) 아태 지역의 인구변동이 주거에 미치는 영향(The Effects of Demographic Changes on Housing in Asia-Pacific Region)
- 7) 아태 지역의 초저출산에 대한 정책적 대응 (Policy Responses to Lowest-Low Fertility in Asia-Pacific Region)
- 8)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에서의 ‘스마트 테크놀로지’ 출현과 보건 기여도(Emergence of “Smart Technology” and Its Contributions for Health Care in both Advanced and Developing Countries)

5. 나오며

우리나라의 출산력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렀고, 일부 회복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요원한 실정이다. 이러한 변화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미래의 우리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지하도록

9) 총 32편의 논문이 8월 26일(화)과 27일(수)에 발표됨.

록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고, 고령화를 완화하기 위하여 매우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지만 여전히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성공적인 인구정책의 수행을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정부와 학계는 물론 국민 모두가 인구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바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이론을 축적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한 가장 빠른 길은 인구문제와 관련된 대규모의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선진사회의 이론과 정책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제27차 세계인구총회를 부산에서 개최하게 되어 국제사회의 최신 이론과

정책적 경험을 한국의 중장기 인구정책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인구총회를 유치하고, 개최하는 동안 인구에 대한 중요성을 온 국민이 함께 인식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적극 참여한다면, 인구정책의 성공적 수행에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 중장기 성장동력을 이끌어갈 기본자원인 인구에 통합적으로 접근한 인구정책의 마련은 우리나라의 사회발전을 극대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며, 세계인구과학연맹의 세계인구총회에 적극 참여하고, 성공적인 대회결과를 우리의 학문발전과 인구정책에 활용하는 것은 이를 실현시키는 충분조건이 될 것이다. 보건
복지